

시민의 안전한 삶,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이겨내요! 코로나19”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운용 중이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경로와 도심 곳곳 다양한 시설들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했다. 박물관, 공연장 등 서울시 운영 문화시설도 주 1회 방역 소독을 한다. 의무소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로 소극장 등도 방역대상에 포함된다. 방역이 완료되면 클린존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다.

교통 분야(지하철, 버스, 택시)도 예방을 위해 매일 멸균소독과 방역을 진행한다. 외국인 탑승객이 많은 공항철도는 손잡이, 좌석 등의 소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정보센터와 관광안내소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방문객에게 감염 예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다. 또 숙박업소에서는 4개 국어(한·영·중·일)로 번역된 ‘투숙객 예방행동수칙’을 배포해 발열 체크,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신고센터 운영

시는 지난 1월 31일부터 매점매석 행위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손 세정제 등의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점검해 시장감시를 강화했다.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을 투입해 시 소재 보건용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적발될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



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점매석신고센터 ☎ 02-2133-9550~2

긴급자금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다. 5천억원의 긴급자금을 1.5%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서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과 보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보증 비율 상향 및 보증료 인하 등 최고 수준의 보증 혜택도 제공한다.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은 시내 2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 02-1577-61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클린존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과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내 확진자 동선과 방문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방역이 완료된 시설은 ‘클린존’으로 지정되며, 클린존임을 나타내는 스티커와 현수막이 부착된다. 지정된 곳은 지속해서 관리돼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를 참조하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문의 ☎ 1339, ☎ 120

